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 재 훈	학번	
이메일	jk833@gg.go.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GLI	(국가)미국
기 간	1년(2017.1.9-2017.12.15)	[귀국일:2017년12월2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2월 일

신 청 인 : 김 재 훈 (안)



□ 샌디에고 소개

태평양 연안의 항구도시이며 미국 육군·해군의 중요 기지로 샌디에이고 만(코리나도와 연결되는 다리가 있음)에 면해 있다.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샌디에이고 만(57km)은 중첩되는 2개의 반도(서쪽의 포인트로마와 동쪽의 코리나도)로 보호되는 수심 깊은 항만으로, 상업적 어선단의 모항이며, 미 해군 제11군구의 사령부 소재지이자 육군·해병·해안경비대의 군사시설을 위한 작전기지도 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천연 항만으로 연안선박과 외항선의 1차 기항지이다. 임페리얼 계곡에서 재배되는 목화가 이곳에서 대량으로 적출된다.

우주항공·전자제품·조선공업이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도시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주요농산물 출하지이기도 하다. 온화한 기후와 휴양시설들이 관광산업을 크게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샌디에이고의 주요산업인 항공기 제조업이 유치되었으며 나중에는 경영인력이 증대되고 전자제품과 로켓 산업과 같은 중요한 신규산업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샌디에이고는 생산액 측면에서 미국의 주요농업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감귤류·아보카도·과수작물·가축 등이 주산물이다. 인근에 여러 해변휴양지, 미션베이 수중공원, 복구된 올드타운, 클리블랜드 국립산림지(샌디에이고에 본부가 있음), 매력적인 풍물을 갖춘 멕시코 국경지대가 있어 관광이 주요경제요소가 되고 있다. 벨보아 공원에는 세계적인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있다.

샌디에이고에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1897), 샌디에이고대학교(1949),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교(1958 설립, 1903년 설립된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음) 및 2개의 초급대학이 있다. 1913년에 커브릴로 국립기념지가 설립되었으며 그곳에 포인트 로마 등대(1855 축조)가 있다. 1850년 시가 되었다.

□ 초기적응

○ 주택준비

우리가 주로 거주하게 될 미국의 주택은 개인주택인 콘도미니엄과 임대주택인 아파트로 구분된다. 주로 한국에서 사전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미리 가 있는 주변 친구, 동기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샌디에고 한인 홈페이지(www.sdsaram.com)를 이용하여 알아본 후 아파트 매니저와 이멜을 주고받으며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좋다. 가급적 출국 전에 주택은 준비를 해놓고 가는 것이 생활하기에 유리하다.

또는 현지에서 직접 물색하여 계약하거나 '샌디에고 정착도우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정착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한국에서 미리 도우미와 계약한 후 미국에 도착하면 도우미가 대부분의 정착을 도와주게 되며, 집계약, 수도, 인터넷, 은행계좌 오픈, 전기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빠른 정착이 가능하나, 소정이 수수료가 필요하다.(약 \$1,000 내외)

렌트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2,000~3,000 내외라고 생각하면 된다(2bed 2bath 기준)

○ 자녀학교

미국의 학제는 초등학교(5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4년)으로 되어 있으며, 9월에 학기가 시작된다.(12월에 입국하는 분들은 1월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함)

주로 UTC 근처에 살게 되는데, 주로 Doyle 초등학교 또는 Curie 초등학교가 대표적이며, Standly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등록은 1월 첫등교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 office에 가서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서류는 학교 office에서 나눠주며,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예방접종 확인서가 특히 중요)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급식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으로 무료급식도 신청이 가능하다.(미국내 소득이 없으므로 대부분 가능하며, 인터넷신청으로 처리)

○ 주택생활

임대주택내 냉장고,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세탁기와 건조기는 임대주택내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고, 아파트내 세탁실을 따로 두는 곳도 있음), 주택내에 침대, 책상 같은 가구는 없으니, 따로 구입해야 한다.(한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 가능) 그리고 방 천장에 전등이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스탠드도 필수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처럼 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수거는 없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단지내에는 주로 수영장 및 바비큐장이 갖추어져 있으며, 좋은 단지는 피트니스 센터도 있는 곳이 있다.

우편함은 아파트 단지내 별도로 있으며, 임대계약시 열쇠를 받아 사용한다.(수시로 확인 요)

○ 차량 및 운전면허

미국에서 차량은 필수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급적 도착 직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함 다. 차량은 한국에서 미리 구입하여 미국 도착 후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미리 구입하여 사용)

다만,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장 큰 문제로 남게 되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가는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일정기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증명되지 못한 의견이므로 무조건 빨리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 가서 필기, 주행시험 치러야 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시 운전면허증(운전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고 동승석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운전을 허용하는 증서)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증서로 주행시험 연습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증서만 가지고 혼자서 운전하다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면 무면허로 간주한다고 한다.(그러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음)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 즉시 주행시험 신청도 같이 하는 게 좋다.(내가 초기에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함. 따라서 미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함.)

○ 수도, 전기, 인터넷 등 설치

수도의 경우는 임대주택 계약시 상, 하수도 회사와 연결시켜준다. 이는 Deposit는 없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함께 청구된다. 월 \$40-70 정도로 보면 된다.(가족수에 따라 차등)

전기의 경우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전기회사(SDGE)에 전화하여 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SDGE의 경우 한국인 translator를 요청하면 한국인과 통화가 가능하므로 한국인과 통화하면서 방법 취득 가능) 이는 Deposit이 있으며, 보통 \$50-80으로 보면 된다.(가족수에 따라 차등)

인터넷의 경우는 인터넷회사(보통 Time Warner Cable을 선택함)와 연락을 취하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회사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준다.

○ 은행

여기에서는 주로 The Bank of America, Citi Bank 등을 많이 이용한다.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여권(비자), DS2019 등이 필요하다. 계좌개설 후 1주일 내외에 현금카드(Debit Card)와 수표책(Check book) 등이 주소지로 배달되며, 주택임차비, 전기, 수도, 인터넷요금 등을 수표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게 된다.(물론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고 자동이체도 가능함) 미국에서 일상적인 물품구매 등은 주로 Debit Card를 사용하게 된다.

○ 생활필수품 구입

Tv, 책상, 식탁 등은 샌디에고 한인홈페이지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고, 식료품, 육류, 과일, 기타 생활용품은 Vons, Walmart, Costco, Ralphs 등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게 된다. 샌디에고에는 한인타운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는 시온마켓, H마트라는 대형 한인마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음식이나 한국제품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한인식당도 다수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구입영수증만 있으면 이미 사용했더라도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 학교생활

○ 학교소개

학교명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이며, 1960년 설립되어 현재 등록학생수는 28,500명이고, 면적은 1,200에이커이다. 또 학교랭킹은 전국공립대학 중 7번째이고 전국대학교 중 35번째로 우수한 대학이다.

우리는 이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GLI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며, 이 과정에

는 KDI 뿐만 아니라 KAIST 및 일본, 중국 등 여러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다.

○ 학 기

학기는 winter, spring, fall quarter 등 3학기로 되어 있으며, 각 학기 당 12학점을 수강하게 된다. 여기에는 GLI과정 과목과 학위과정 과목 중 최소 3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일년에 최소 총 9과목 3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영어과목은 2학점으로 영어과목을 포함하면 학기당 총 4과목을 수강해야 함)

○ 수업진행

출석율은 최소한 80% 이상 되어야 하며, 그 미만 출석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료가 불가능하며 귀국 조치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보통 점수는 출석 20%, 수업중 참여도 20%, 과제 20%, 시험 40%로 하여 산출되며, GLI 과정은 PASS/NON PASS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수업방식은 대화형식의 강의와 수시과제 및 발표를 통한 학습지도가 대부분이며 과제는 과목에 따라 상이하나 과목당 주1회 정도 과제가 있다. 시험은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파워포인트 작성 및 발표나 에세이 작성 또는 일반적인 필기시험이 있다.

○ 평 가

영어과목을 제외한 GLI 일반 과목이 적어서 보통은 학기당 1-2과목은 일반 대학원생과 함께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런 과목의 경우 과제제출 및 중간, 기말고사를 모두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로 수강과목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 외국생활

○ 여 행

학기중에는 보통 금, 토, 일을 활용하여 서부쪽 여행을 주로 한다. 샌디에고 해변(라호야쇼어스, 라호야 코브, 미션비치 등), 샌디에고 사막(조슈아트리 국립공원, 안자보레고 사막), 그랜드캐년 등 서부 캐년, 엘로스톤,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아리조나 주 새도나, 피닉스 등이 주로 여행하는 코스이다. 반면, 약 3개월간의 여름방학기간에는 주로 동부나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여행을 주로 하게 된다.

○ 취미생활

골프는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이다 또한 미국은 쇼핑의 천국이라 볼릴 정도로 수많은 아울렛매장과 대형마트 등이 자리잡고 있어 쇼핑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다. 이곳 샌디에고만 하더라도 대형 아울렛이 3개 이상이고, 이런 대형 아울렛 말고도 대형 쇼핑몰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즐길 수 있다.

○ 도로이용방법

먼저 해야 할 일은 차선 변경시 반드시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유턴 금지표시가 없는 한 좌회전 신호에서는 유턴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항상 우회전이 가능하고 좌회전 전용, 우회전 전용, 자전거 전용, 카풀전용 차선이 있다. 길거리 주차가 자유로우나 보도 경계석이 적색인 경우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STOP 표지판이 있으면 반드시 정차 후 출발하고 먼전 도착하여 정지한 차량이 먼저 출발하게 된다.

미국의 고속도로는 시내에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고 러시아워에는 Freeway 진입시 신호등이 있다. 고속도로 대체도로로서 Toll road가 몇 개 있으며 통행료는 우리나라 수준이고, 고속도로에 Car pool 차로가 있는데 대개 2명 이상 탑승차량은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는 차량이 적발되면 약 \$4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우회전시 전방에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단정지후 출발해야 한다.

□ 기 타

2016년 KDI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2년차 학교를 선택할 당시 여러 선배님, 동료들과 상의하면서 결국 샌디에고로 오게 되었다. 비록 물가, 특히 주택 임대료가 비싸서 선택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으나, 생활환경, 기후, 샌디에고 주민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결과인데 나는 매우 만족하게 생활하고 귀국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에 매우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 샌디에고를 선택하는 후배님들도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태운	학번	
이메일	Kimtw69@hanmail.net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국가)
기 간	1년	[귀국일: 2017년 12월 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an Diego 일반환경

1) 지리적 특징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주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로스엔젤레스와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와 인접하고 있는 도시이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전체 인구는 300만 정도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샌디에고시 지역은 140만 정도이다. 샌디에고에는 해양,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인 스크립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많은 바이오 기업들과 퀄컴 본사 등 IT기업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첨단산업의 으며, 멋진 풍광으로 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면서 16개의 해군 및 육군기지가 존재하는 군사 도시이기도 하다. 샌디에고항에 가면 태평양함대소속의 거대한 항공모함과 각종 군함들을 볼 수 있다.

2) 날씨

샌디에고는 지중해성기후로 년중 날씨의 변화가 한국처럼 크지 않다. 겨울철의 최저기온은 섭씨7도 정도로 밤에는 약간 쌀쌀한 편이며, 12월~2월은 우기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나 양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아파트내 방에는 주로 히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추위를 타는 사람은 전기장판을 준비해 오는 것도 괜찮다. 여름철의 경우에도 섭씨 30도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습도가 낮아 야외는 햇볕이 강하지만 실내는 쾌적한 편이다.

3) 교통

샌디에고의 도로망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고속도로는 무료이며(일부 유료도로가 있으므로 필요시 수신기를 구입하면 된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대중교통은 시에서 직영(MTB)하는 트램(경전철),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요금은 1회 탑승의 경우 2.25달러로 비싼 편이나, Pass Card를 구입하여 1일권, 3일권, 5일권 등을 충전하여 사용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인구구성

인구구성은 백인이 64%로 가장 많으며, 흑인 5.6%, 아시안 11% 등이며, 라틴계가 32%를 차지한다. 한국인은 3만명 정도가 거주한다.

5) 시간대

태평양시간대(UTC-8)를 사용하여 한국과의 시차는 17시간이며, 하계에는 일광절약타임제를 적용하여(UTC-7) 16시간의 시차가 있다.

2. 샌디에고 생활 및 정착

1) 휴대폰 개통

미국에 도착 후 가장 필요한 것이 휴대폰이다. 집, 자동차, 은행 등 각종 계약을 위해서는 연락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년이상 거주할 경우라면 미국 통신사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1년만 체류하는 KDI프로그램 학생들의 경우 한국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심만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 한국에서 선불 유심을 구입하여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없이 미국에서 선불 유심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 은행계좌 개설

미국에 도착 후 가급적 빨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Citi Bank, Chase, Bank of America 등 집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계좌개설은 은행 방문 시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가는 것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필요서류는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집계약서 등)를 가지고 가면 된다.

3) 자동차 구입 및 보험

미국에서 자동차는 필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 자동차는 딜러나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시장가격을 미리 확인해 보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자동차정보 사이트로 KBB(Kelly Blue Book)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한다. 한국의 운전경력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보험은 보험 에이전시를 통해 가입하면 되며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주로 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은 가까운 DMV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리 캘리포니아주 DMV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방문당일 치르게 되며 시험은 한국어 선택이 가능하며, 한국어의 경우 인쇄된 시험지에, 영어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른다. DMV에 시험관련 책자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책자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후 원하는 날짜를 현장에서 지정하거나 추후 인터넷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보통 3-4곳의 시험주행경로가 있으므로 미리 몇차례 연습하고 가면 된다.

5) 각종 유틸리티 신청

미국은 전기, 인터넷 등 유틸리티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의 경우 AT&T 또는 Spectrum을 이용하면 되고, 속도는 한국과 비슷하여 동영상이나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도 끊김없이 잘된다. 전기는 SDGE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SDGE홈페이지(sdge.com)에서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30%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요금도 비싸지 않다.

6) 사회보장번호 발급

사회보장번호는 사용할 용도가 많지 않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J비자 소지자의 경우 발급받아 두는 걸 권장한다(운전면허증 신속발급 등에 유리). 발급은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있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나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7) 자녀교육

자녀를 동반하여 미국에 가는 경우, 미국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Kinder garden, K1-K12)은 무상교육이다. 미국에 입국 후 입학신청서, 거주지별로 배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되며, 자녀의 배정 학년은 9월기준으로 입학 학년이 정해진다. 등학교는 부모가 차량으로 픽업하든지, 스쿨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가 가까운 곳은 도보로 다닐 수도 있다.

3. UCSD 학교생활

비학위의 경우1년동안 3개학기(겨울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총 36학점(학기 별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겨울학기(1~3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와 실리콘밸리투어, 워싱턴 D.C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이수과목은 학기 별 2과목의 영어수업(과목당 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GLI 1 과목(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 대학원(GPS)과정의 학위과정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수업의 난이도는 KDI수업과 비교하여 쉬운 편이다. 비 학위 과정의 경우 성적은 대부분Pass제로 운영된다. 영어과목은 Writing과 Communication 과목을 들어야 하며, 토플 또는 토익 성적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담당교수의 허락을 미리 받아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름방학기간은 6월말부터 9월까지3개월이며, 이때 장거리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 단, 영어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ELS과목을 5주정도 이수하여야 한다.

4. 총평

샌디에고는 온화한 기후와 태평양을 끼고 아름다운 해변과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으며, 슬럼가가 별로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진 도시로 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UCSD GLI과정의 경우 학기중에 다양한 커뮤니티 투어, 소셜 행사 등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학위과정의 다양한 수업들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과정이었다. GLI과정의 수업은 어렵지 않은 편이며, 학문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학위과정 수업을 수강하면 된다. 거주비가 다소 비싼 편이기는 하지만, 식료품 등 나머지 물가는 저렴한 편이어서 생활비가 생각보다 크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 단, 자녀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주위에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편이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2월 일

신 청 인 : 김태운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변인순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sb1615@korea.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 GLI	(국가) 미국
기 간	2017.01.9 ~ 2017.12.14	[귀국일: 2017년12월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월 2일

신 청 인 : 변 인 순 (인)

초기 생활 적응

1년간의 KDI 생활 후 내가 선택한 해외 제휴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였다. 여러 선배님들의 권고를 따랐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한 선택이었다. 엘에이(Los Angeles)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샌디에고는 미국 내에서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손꼽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기후다. 일년 내내 온화하고 따뜻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겨울에도 골프를 칠 수 있어 한국에 비해 시간을 늘려 쓰는 느낌이었다. 연중 한국의 가을과 비슷한 날씨는 늘 쾌적하고 하늘은 늘 맑고 푸르다. 맑은 날만 계속되는 날씨 탓으로 많이 건조한 편으로 최근 자연발화 산불도 발생하였고, 피부보습제가 발달했다. 한여름에도 햇살은 뜨거워도 땀이 나지 않아 활동에 문제가 없다. 우기인 1월에 비가 집중해서 내린 이후, 연중 비 구경을 하기 어려워 우산이 필요할까 싶은 곳이다. 이곳 사람들은 간혹 내리는 비를 감사해 하며 즐겁게 맞고 다닌다.

샌디에고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히스페닉이 유난히 많다. 지명에도 스페인어가 많이 묻어 있고 관공서에서도 영어와 스페인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멕시코인이 많아 한국인의 식성에 잘 맞는 멕시코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대형 한인마트가 2개나 있어 다양한 한국김치와 반찬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당도가 높은 과일과 신선한 채소는 물론 쌀, 우유, 고기 등 질이 좋고 저렴하여 간단한 요리라도 할 수 있다면 먹거리에서 무척 만족스러운 곳이다. 대부분 1년 동안 살면서 영어보다는 요리실력이 늘어서 간다고들 할 정도이다.

그 외에도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 카센터, 보험회사 등이 있어 영어가 부족해도 살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사설 어학원도 많이 있는데 월 200불 이내 학원도 있어 한국보다 저렴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만 21세가 넘으면 F1 비자를 취득해야 하고, 비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루 4시간, 주 4일 과정의 수업에 참여한다. 젊은 자녀들은 대부분 사설 어학원으로 가는 반면, 배우자들은 메사 칼리지 평생교육원(Mesa College Extension) 프로그램에 본인 수준에 맞게 참여하면 되는데 무척 다양하고 질이 높지만 무료이다.

아울러 샌디에고는 가까운 곳에 관광할 곳이 무척 많다는 장점도 있다. 시월드, 레고랜드, 발보아 파크, 라호야 코브, 코로나도, 포인트 로마, 델 코로나도 등이 대표적인 곳인데 연중 관광객으로 붐빈다. 한 두 시간 거리에 안자보레고 사막, 조슈아 트리, 팜스프링도 있는데 이곳 역시 주립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볼거리가 많다.

날씨, 먹거리, 볼거리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샌디에고는 인기지역인 만큼 집세가 KDI 제휴대학이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4인 가족이 거주하기 적당한 침실 2개와 욕실 2개의 아파트의 경우, 저렴한 월세가격도 2천불에서 3천불 사이를 오간다.

아울러, 미국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해변을 낀 넓은 공원이 곳곳에 있는데 테이블과

바비큐 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가족과 나들이 하기 무척 좋다. 동네마다 공공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마다 독서, 영어 ESL, 요가, 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책은 1인당 20~30권 정도 한번에 빌릴 수 있고, 한국과 달리 DVD도 1주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어 다양한 영화도 즐길 수 있다.

교육의 질

UCSD 비학위 과정은 GLI(Global Leadership Institute)이라 불리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ESL과정은 한국 KDI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평이하다. 타 과목도 GLI과정은 KDI과정에 비해 내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나의 경우는 겨울학기 와 봄 학기는 GLI과정을 중심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가을학기에는 일반 전공과목 위주로 수강신청을 했는데 흥미로운 과목을 들을 수 있어 더 좋았다. 미국 대학수업은 교수와 학생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떤 수업은 교수 2명이 COWORK으로 같이 진행하였으며, 서로 상대 교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여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다. ESL과목은 이수학점대비 수업시간이 두 배로 길기 때문에 가을학기에는 전공과목만 신청했는데 UCSD에서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다. 가능하다면 GLI과정 이외에 전공수업도 들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KDI에서 1년간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어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환경(아파트)

샌디에고는 치안이 잘되어 있고 안전한 곳이지만 미국 어느 지역이나 있는 총기 사고는 가끔 언론에도 나오는데 총기소지가 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고급 아파트라면 관리비에 전기, 인터넷케이블 등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Office별로 찾아가 개인별 account를 만들고 지불방법을 신청 후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한번 더 처리를 해야 한다. 늦게 낼 경우 late fee가 높기 때문에 제때 공과금을 챙겨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워낙 여러 건을 한번에 처리하다 보면 ID나 비번이 기억이 안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메모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별로 요구하는 비번 조건이 다르므로 같은 걸 사용하긴 어렵다.

여성의 입장에서 미국생활에서 제일 편한 건 세탁문화인 듯 하다. 대부분의 아파트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함께 비치되어 있고 저렴한 아파트의 경우 동전을 사용하는 세탁실이 별도로 있다. 1시간 15분이면 세탁에서 건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래를 햇볕에 말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또한 미국에선 빨래를 외부에 널어서도 안 된다. 햇살이 너무 좋아 이불이라도 잠깐 널었다 가는 즉각 아파트 매니저의 경고를 받게 된다.

YMCA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비싼 이유로 개인별로 운동을 많이 한다. 동네마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난 주로 YMCA를 이용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수영, 요가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농구, 배구, 야구,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캠프 프로그램도 있어 친구를 사귀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국립공원 연회원 카드(National park annual pass)

미국은 국립공원이 무척 잘 되어 있으나 한국과 달리 입장료를 받고 있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샌디에고에 있는 포인트 로마는 10달러, 조슈아 트리는 25달러, 그랜드 캐년은 30달러다. 물론 승용차 한대당 가격이다. 하지만 80달러인 연간 회원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 국립공원 입장이 무료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국립공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므로 처음 가는 국립공원에서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Lodge나 camping site 등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하려면 recreation 사이트(<https://www.recreation.gov/>)에 들어가서 예약하면 된다.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사기전에 먼저 보험을 들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새 차를 살 때 돈을 다 지불하고도 캘리포니아 면허증 소지자가 동승해야 차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혼자 가면 차를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갈 때도 본인이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운전면허는 DMV에서 신청하는데 먼저 필기시험을 본 후 합격하면 실기시험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데 통상 2주 뒤의 날짜를 잡아준다.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려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취득하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특히 국제면허증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취득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보험사별로 금액과 보장내용이 천차만별로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아울러 국제면허증(경찰서), 운전경력증명(경찰서), 무사고 증명서(보험회사) 등을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할인해 주기도 한다. 처음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가입하기 보단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가입 후, 면허증을 땀 후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추천한다. 보험 해지가 쉬워 부담스럽지도 않다. 해지내용을 전화로 통보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해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잔여분은 수표로 발급되어 우편으로 배달해 주거나 계좌로 송금해준다. 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지신청을 했더니 며칠 뒤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캠핑

미국은 캠핑문화가 발달하였다. 여행을 다니는데 있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숙박비인데 비용을 줄이려면 캠핑을 추천한다. 캠핑장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반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캠핑장비도 저렴한 편이라 구입에 큰 부담도 되지 않은 반면, 가족과 추억 만들기에 좋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국립공원 캠핑장은 인기가 많아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캠핑장은 공원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배정되어 있고 LODGE 등 공원내 숙박시설은 무척 비싼 편이다. 그랜드캐년 캠핑장의 경우 1박에 18달러였는데 텐트 2개는 칠 것 같은 공간에 주차 공간도 2대 이상은 댈 수 있도록 넉넉했다. 화장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위치가 좋아 자연과 한 몸이 되는 느낌이었다. 필수 장비인 텐트, 침낭, 에어매트, 담요, 버너만 있으면 밤을 보내기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각 site마다 10인용 식탁과 큼직한 화덕도 놓여져 있어 한국보다 짐을 덜 들고 다녀도 된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 보온효과가 좋은 침낭이 필수인데 2인용보단 1인용이 더 편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캠핑은 주로 휴식을 취하러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먹고 마시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닌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비자, 출입국

미국공항에 처음 내려 입국 수속을 밟을 때 기계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심사대에 가면 일반 여행객과 달리 장기체류자인 경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지만 별문제는 없다. 멕시코나 캐나다 등 국경을 넘을 때도 입국심사를 똑 같이 받아야 하므로 비자와, DS 2019(또는 I-20)를 반드시 챙겨서 다녀야 한다. 동부에서 캐나다 여행할 때 일행 중 한 명이 I-20를 가져오지 않아 풍경이 더 좋은 캐나다 측 나이아가라 폭도 여행을 못 가고 미국에 홀로 남은 적이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 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갔음을 새삼 느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무척 긴장했고, 새로운 풍경에 무척 설레었는데 그것들이 익숙해 질 무렵 떠나야 할 시기가 왔다. 미국에 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낙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 업무 처리 방식도 제 각각이라 요구하는 사람한테만 제공해주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호텔에 체크인 할 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지, 쇼핑할 때는 혹시 추가 할인이 가능한지도 물어보는 게 좋다. 또한 담당자들한테 재량이 주어지는지 요구하는 서류도 다르고 처리결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요구할 때 처음에 거절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가는 곳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여행하는 즐거움도 크다. 여행 다니기 좋은 시기도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일정을 잘 짜서 여행을 다니면 좋다. 특히 옐로우스톤 같은 지역은 여름에만 관광이 가능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료나 숙박료가 시기와 날짜 별로 차이가 크므로 비교검색 사이트(KAYAK, SKY SCANNER)에서 꼼꼼히 잘 살펴, 성수기엔 비싼 곳을 피하는 등 시기를 조절하면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 또한 여행하기 전에 여행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큰 도움이 된다. 계획을 잘 세워 시행착오를 줄이고 1년이란 시간을 2년처럼 알뜰하고 유용하게 잘 쓰길 바란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향우	학번	
이메일	lhw1601@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GLI	(국가) 미국
기 간	2017. 1. 5 – 2017. 12. 15	[귀국일: 2017년12월1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2월 20일

신 청 인 : 이 향 우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San Diego는 미국 California State의 남부, 미국의 남서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 위치한 LA로부터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그리고 남쪽으로 Mexico로부터는 30분 거리에 있다.

기후는 여름에는 햇빛은 따가울 정도로 강하지만 그늘에 들어서면 시원하고 저녁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습하지 않아 더운 느낌이 없이 쾌적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겨울의 경우 낮에는 따뜻하거나 때론 덥기도 하지만 밤에는 추워 난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서태평양에 접하고 있어 때론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인디안 썸머) 경우가 있고, 갑자기 서늘해 지는 경우도 있다. 연간 강우량이 많지 않고 연평균 기온은 약 13-20°C 정도 높아 온화하고, 특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캘리포니아의 특성상 깨끗한 공기로 생활하기에 매우 쾌적하다.

San Diego는 연중 온화한 날씨, 쾌적한 생활환경, 낮은 범죄율 등으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월세, 기름 값 등의 물가는 높지만, 농산물 등 식자재 값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GLI(Global Leadership Institute)는 Non-degree 코스로 세계 각국에서 직장인들이 해외연수 Program으로,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GLI의 프로그램은 평이한 수준이며, 매 학기당 3-4과목 (1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과목마다 Report, Presentation과 Mid Term, Final Term Exam 등으로 구성된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Quarter)는 1년 동안에 Winter, Spring, Summer, Fall 4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US government, Global Leadership,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영어, Presentation Skill, Academic Writing 등을 배운다. Summer학기는 ESL 코스로 주로 일반 영어과목을 공부하며 TOEFL (또는 TOEIC) 점수 제출로 제외할 수 있다.

매 학기 3-4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겨울학기는 ESL 2과목, 보통 일반대학원 코스 1과목, GLI코스 1과목을 이수한다. 봄학기의 경우는 GLI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며 일반 대

학원 코스 2과목, ESL 2과목을 이수하며, 가을 학기의 경우는 GLI 2과목, ESL 2과목이 개설된다. ESL 과목은 주로 미국의 문제점 (가난, 인종문제, 총기사고, 환경문제, 비만과 음식문화 등)을 다루며, 이를 이용한 presentation과 writing을 배운다. 그리고 GLI 과목은 주로 외국인들을 위한 과목으로 학습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나 일반 대학원 과목은 현지 미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경우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다. GLI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과 일반 대학원 과목의 수강 신청에는 별 다른 제약이 없지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GLI 과정에는 San Francisco와 Washington DC 세미나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San Diego 내의 야구장, 항구, SDG&E innovation center, County of San Diego 등을 방문함으로써 살고있는 지역의 이해를 돕는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GLI (Non degree) 과정 학생은 기숙사 입실자격이 없어 캠퍼스 밖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San Diego의 아파트 임차료는 타 도시에 비해 비싼 편으로 보통 1 bed, 1 bath가 1,500-2,000불 정도이고, 2 beds, 2 baths는 2,000-2,500불 정도이다. 그러나 KDI 학생들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지고 학교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임대료가 좀 싸지만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다. 대부분의 아파트 바닥은 카펫으로 소음 방지에 좋으나 먼지가 많고 생활 환경에는 쾌적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학교 수업이 길지 않은 관계로 (수강 신청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먹게 된다. 처음에는 양식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양식의 느끼함에 질려 바로 한식 위주의 식사로 돌아오게 된다. San Diego에는 Zion Market이 있어 주말 세일을 이용하면 신선하고 값싼 과일 및 야채를 살 수 있다. 과일 및 야채의 가격은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과일도 한국에서 접하지 못한 이색 야채와 과일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육류 및 식수 등은 코스트코가 저렴하며, 공산품의 경우 미국은 환불 및 교환 제도가 잘 되어있어 편리하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San Diego는 한국과 같이 분리수거가 발달하지 않아 종이와 플라스틱 정도만 분리수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닐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물병 등 플라스틱 병에 재활용 비용이 추가되는데 (구입시에 물건값에 추가됨), 빈 물병이나 캔을 모아 재활용 센터에 갖다 주면 그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

부분 가솔린, 공산품, 식수 등은 코스트코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가져가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마존의 이용은 학생의 경우 6개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료 배송 및 영화 등을 볼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시에 체크를 신청하면 생활하는데 편리하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체크이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쓰이며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체크나 현금이 아닌 온라인 이체 시에도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공과금, 아파트 월세 등 납부시에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 되므로 납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차 위반, 주차 시간 초과시에는 주차료에 상관없이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운전시에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오면 한쪽으로 비켜서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하며, San Diego의 경우 소방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 다니므로 유의 해야 하며, 스쿨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학생들을 태우고 내릴 때에도 정차하여야 한다.

여행시에는 여행계획은 일찍 세우고 비행기표는 일찍 예약하는 편이 저렴하며, 호텔의 경우에는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그리고 비행기표도 매일 금액이 달라 지므로 구글에 등록해 놓으면 메일로 금액의 변경을 알려주며, 여행전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점검, 로드 서비스, 보험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 많은 곳을 여행하기를 추천한다. 나의 경우, 여름 방학동안 항공편으로 이동하여 렌트카로 여행하는 동안 미국의 또 다른 면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국립 공원들은 정말 부러웠으며, 백인들만 사는 마을, 치안이 불안해 보이는 마을 등 직접 돌아 다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험 이었다. 그리고 고속도로 운행 중 로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타이어 값과 보험료를 받기위해 Agency와 본사와의 의견이 달라 한달 동안 메일과 전화로 이의 제기를 했던 것도 힘들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 과정으로 미국에 직접 살아본 경험은 말이나 책을 통해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San Francisco와 Washington DC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그런 면이 샘이 나기도 했다.

UCSD의 GLI은 과정은 Non Degree Course로 비록 학위는 받지 못하지만 ESL과 GLI 과정을 통한 Presentation Skill과 세계 문화를 배우고, 일반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GLI 과정은 남들보다 미국생활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이다. Degree과정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시간을 활용한 폭넓게 교류, 방학 때 미국 각

지의 주요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낀 경험 등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J 비자의 경우 학기를 마치고 한달간, F 비자의 경우 2달간의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다. 아이가 미국에서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J2 비자가 아닌 F1 비자로 가는 것이 편리하며 UCSD 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출·입국의 경우, 별다른 불편 사항은 없었으며 질문은 기본사항 정도이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경우 학원에 따라 여름방학과 해외방문에 따른 방학, 몇 개월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할인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나 재정에도움이 된다. 만일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을 할 경우 F1 비자는 학원의 확인 사항이 필요하니 학원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에 있는 동안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어의 능력에 얽매이지 말고,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가급적 많은 외국인과 교류하고 미국의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 문화, 생활 등 폭넓은 지식을 통해 그들의 글로벌 기업의 저력, 다른 나라를 연구하는 연구시스템, 자본주의 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미국의 장점과 단점을 한국의 발전에 적용,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일년간 미국 생활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소중한 자기만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두수	학번	
이메일	nogojiri007@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GLI (국가) 미국		
기 간	2017.1.9-2017.12.15 [귀국일: 2017년12월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 월 22 일

신 청 인 : 김 두 수 (인)

귀국 보고서(UCSD GLI)

1. 입국 및 현지 정착

- o 2016.12.27 아시아나 OZ202 편으로 LA 공항에 입국 후 미리 예약한 렌터카("Hertz")를 이용해 샌 디에이고 도착

- 살 집은 UCSD 근처에 “Solazzo” Apt로, 입국 전 임차계약을 완료하고 이전거주자로부터 살림살이 일체를 인수하여 초기정착이 비교적 수월
- 2bed 2bath로서 리모델링되어 있어 비교적 깔끔한 느낌. 방바닥은 카펫으로, 거실 바닥은 한국식 마루로 깔려있어 편리했으며, 위치는 학교까지 걸어서 25분 정도 소요
- 전기 및 가스 설치의 어려움은 미국 전역의 공통사항으로 회자되는데, 실제로 샌디에이고 전기가스 회사 SD G&E로 부터 거주자 명의변경 및 온라인 Account 개설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
- 인터넷 연결 또한 출장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짐에 따라 인터넷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셀프설치 안내를 받고 모뎀 등 관련 장비를 받아와 손수 설치
- 운전면허증은 과거 미국 체류시 취득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제시, 신규 갱신하였고, 은행 계좌 개설도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당일 마무리
- 자동차는 어바인 소재 중고차 딜러에서 구입하였는데, 자동차 등록을 위해 책임 보험가입이 선결 조건이어서 미리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현장에서 곧바로 차량 인수
- ※ 대부분 회사나 관공서가 현금 거래보다 카드결제나 퍼스널체크(수표)를 요구하고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구축, 자동이체가 편리하며 특히 은행은 온라인상 거래내역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효율적

2. 현지 생활

- 봄 학기 시작직전 실시한 워싱턴 현장방문(3.28-4.1)은 학교측의 알찬 준비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 이상이었음
- 정부기관으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태사무소 데스크와 하원 금융위

원회를 방문, 브리핑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막후 영향력이 큰 "Cato 연구소," "Woodro Wilson 센터", CSIS, Brookings 등 유수의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면담, 경제 및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 출발 전에 소그룹별 방문기관 연구 및 질의사항 등을 준비하여 그간 갖고 닦은 어학능력 활용은 물론 현장 감각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o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샌디에이고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축제·이벤트 행사 및 명소를 찾아 미국 문화를 체험
- o 여름 방학 기간 중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며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음
- 한 달여 동안 미국과 캐나다 서부지역을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국립공원내 캠핑과 함께, 각각 고유의 풍광을 감추고 있는 트레일들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
-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 관리(National Park Service)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미국 선각자들의 혜안을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선진적인 운영방식과 시민의식에 감명받았음
- 미국을 동서로 왕복하는 정도 거리(8,000km)를 이동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을 두루 둘러보고 현지인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어 진정한 문화체험의 시간이었음.

※ 미 서부여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부 자동차 여행 일정 및 간단한 소감을 첨부하였음

3. 학업 등 학교생활

[겨울 학기]: 1.5 오리엔테이션 후 1.9~3.23간 겨울학기 진행

- o UCSD GLI 과정 연수생은 Full Time으로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영어인 ESL 2과목 4학점은 GLI연수생들만으로 클래스를 편성 운영하고 나머지 8학점은 일반 학위과정 과목을 수강 신청 및 등록하여 정식으로 수강
 -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한 과목에 한해 정식 등록하지 않고도 강의자료 열람권한 등 공식 청강생 신분을 부여, 최대 15학점까지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o 수강내역은 Busines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Ideas, U.S. Government & Politics, Organization, Debating US Foreign Policy(Audit) 등 총 5과목
- o 한편, 샌프란시스코(2.22~25)와 워싱턴(3.28~4.1) 현장방문 참여
 - 샌프란시스코: 구글, 인텔, 오라클, 샌프란시스코 시청, 미 연방은행 샌프란시스코 지점, US Foundation
 - 워싱턴: 미 국무부 동아태사무소, 카토 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브루킹스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 하원금융위, 한미경제연구소

[봄 학기] : 4.3~6.18간 봄 학기 수강

- o 체류 자격 유지 등을 위해 내부규정상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해 학업에 충실
- o GLI과정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과목(총 4학점)은 프리젠테이션 기법·회화 위주의 Business Communication 코스(2학점)와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 Critical Analysis 코스(2학점)를 수강
- o 석사학위 과정 전공과목으로 "Korean Security"와 "China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등 두 과

목(각4학점, 총 8학점)을 이수하였으며 "Big Data Analysis" 과목을 청강

- 미국내 저명한 북한전문가이자 저술가인 Seven Haggard 교수가 강의하는 "Korean Security"에서는 북핵위기의 실체와 6자 회담국들의 시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북핵 해법에 대한 통찰을 얻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 "China in the Global Economic Order"를 통해서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현주소와 제도개혁 등 국가발전 전략 및 시장경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조망해보고 우리의 대응 스탠스도 고민
- "Big Data Analysis"는 디지털시대 미래예측과 위기분석 톨에 대한 내용임에 따라 의욕을 갖고 임했으나 초반 이론 강의 외에 R프로그램의 기술적 활용에 치중해 기대에 미치지 못함
- o 한편, 정규 수업이외에 UCSD 국제협력 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 지역사회 퇴직교사들로 부터 영어회화 학습 및 미국인의 일상생활 등 문화적 소양도 배양
- ※ 정식 수강한 학위과정 두 과목 모두 강의계획서상 수업중 참여와 학습요구 양이 많아 수강신청 기피 과목이었음에도 개인적 관심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수강했으며 지나고 보니 '남는 게 많았다'는 느낌
- ※ 특히 팀 프로젝트 수행과 함께 개인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까지 참여함으로써 '해 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얻고 원어민 대학원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가진 것은 값진 경험

[가을학기]: 9.28부터 가을학기(Fall semester) 수강

- o 학교 요구 12학점에 영어과목 2학점을 추가, 총 14학점을 수강
- 기본소양 과목인 영어는 회화 위주의 "Essential Presentation Skills for Professionals"(2학점)을 수강

- 또한, GLI 과정 생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설된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4학점)와 "Global Leadership"(4학점) 등 2과목을 수강
- 이외, 석사학위과정(GPS) 전공과목 중 한반도 및 북핵 전문가 Stephan Haggard 교수가 강의하는 "Globalization, the World System and the Pacific"(4학점)을 수강
- * Haggard 교수는 同대학원 학장 역임 등 학내에서는 물론 美 안보정책 전문가그룹에서도 위상이 높은 편이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 영향력이 있으며, 지난 학기에 "Korean Security"과목 강의

4. 총 평

- o GMP 2년차는 직장생활과 학업으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값진 기회였으며, 학업 측면에서도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배우고 싶었던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대단히 유익했음
- o 특히 UCSD 학교측에서 비학위 과정인 GLI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학위과정 수강의 문호를 열어 놓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학업상담 및 개개인의 업무분야나 관심도를 고려한 수강 추천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 큰 도움이 되었음
- o 다만, 현지 미국인 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언어 소통 및 문화적 차이 문제 등으로 인해 여의치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

※ 붙임: 여름 자동차 여행 일정 및 느낀 점 1부

날짜	지역	숙소	관광한 내용 및 느낀 점
8월 9일(수)	킹조지 집에서 출발하여 7시간 40분 이동	딕시 국유림	엄청난 고원에 펼쳐진 목초지. 고원에 가득 찬 들꽃과 브라이스 캐년을 연상하게 하는 계곡이 인상적임. 솔트레이크 시티를 가기 위해 하루 머무는 임시숙소처럼 생각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처럼 얻은 하룻밤.
8월 10일(목)	솔트레이크시티로 4시간 이동	Rodeway Inn Salt Lake city Airport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 시내로 이동하여 템플스퀘어 구경.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리도 깨끗하여 잘

			통제된 전체주의 국가와 같은 느낌을 받음
8월 11일(금)	옐로스톤으로 6시간 이동	옐로스톤 캠핑 장	간헐천 2개 산책, 올드페이스풀에 도착하여 1시간 정도 기다려 간헐천 분출을 봄
8월 12일(토)		옐로스톤 캠핑 장	아침 일찍 서둘러 그랜드테톤 국립공원으로 이동하여 잭슨 호수 트레일을 돌고 제니 호수 트레일을 딱 절반 돈 후(이만 보 이상 걸음) 보트로 돌아오며 소나기를 맞음
8월 13일(일)	Butte로 4시간 이동	Finlen Hottel and Motor Inn	아침에 간헐천 한 개 산책, 지금까지 풍경과는 전혀 다른 드넓은 초원을 보며 맘모스 핫스프링스로 이동. 연신 감탄하며 관람
8월 14일(월)	Glacier로 3시간 이동	스완레이크 캠 핑장	글래셔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인 줄 알았는데 국립공원 1시간 거리의 사설 캠핑장.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고 세면대가 없어서 음수대의 물로 씻고 양치질.. 최악이었다. 추울거란 예상과는 달리 낮에는 너무 더워서 땀냄새는 진동하는데 씻을 수 없었고 밤에는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져 잠을 설침
8월 15일(화)		스완레이크 캠 핑장	숙소에서 한 시간을 달려 글래셔 국립공원으로 이동. 1시간도 넘게 줄을 서서 셔틀버스를 기다려 로건패스로 이동함.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지난밤의 불편과 지루한 기다

			림이 잊혀질 정도로 멋진 풍경이었음.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오래 온몸으로 느끼며 즐기고 싶어서 히든트레일을 걸어서 히든레이크까지 다녀옴(만 칠천 보)
--	--	--	--

여름 자동차 여행 일정 및 소감

날짜	지역	숙소	관광한 내용 및 느낀 점
8월 16일(수)	캐나다 캘거리로 6시간 이동	Econo Lodge Inn & Suites University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달려 글래서 국립공원 동쪽으로 이동 중 도로로 나온 곰 일가족을 바로 앞에서 보는 횡재를 함. 안내소에서 대충 씻고 캐나다 국경으로 이동. 국경처럼 보이지도 않는 초소를 쉽게 통과한 후 캘거리 한인마트와 월마트 쇼핑 후 호텔 투숙
8월 17일(목)	Banff로 1시간 30분 이동	Banff 캠핑장	미국과는 다른(좀더 자연친화적인) 캠핑장 도착. 스완레이크에서 세면대가 없는 불편함을 겪어서인지 온수가 나온다는 점에서 100% 만족함. 짐을 풀고 바로 밴프 시내 구경.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한국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하다고 느낌.

8월 18일(금)		Banff 캠핑장	레이스루이크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당함. 처음엔 호수만 한 바퀴 돌 생각이었으나 준비 없이 예정에 없던 산행을 시작. 물 한통 준비 하지 않고 와서 가족 모두 불편한 상태로 가다가 미러레이크,레이크 아그네스를 차례로 발견하며 기분이 나아짐. 좀더 올라 호수 세 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까지 올라 갔다옴. 내려와서 집에 돌아가다가 차를 돌려 모레인 레이크까지 다녀옴
8월 19일(토)	Kamloops로 5시간 40분 이동	Scott Inn & Restraunt	숙소도착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서 호텔 체크인 후 쉬
8월 20일(일)	밴쿠버로 3시간 이동	롤리 레이크 캠핑장	밴쿠버 스탠리 공원을 잠시 산책하고 그랜빌 아일랜드로 이동. 엄청 복잡하고 주차하기 힘이 듬. 랍스터 두 마리를 찌서 숙소로 돌아옴
8월 21일(월)		롤리 레이크 캠핑장	캠핑장 안의 호수 트레일을 걷고 책을 읽으면서 쉬
8월 22일(월)	시애틀로 3시간 이동	Ecoco Lodge Renton/Bellevue	아침 일찍 서둘러 국경통과 후 시애틀 시내로 이동. 스페이스 니들 앞에서 사진 찍고 시애틀 센터에서 점심 식사 후 파이크 플레이스 퍼블릭 마켓 관광

날짜	지역	숙소	관광한 내용 및 느낀 점
8월 23일(수)		올림픽내셔널 파크 캠핑장	예약을 할 수 없어서 무조건 서둘러 일찍 도착함. 다행히 숙소는 여유가 많아서 텐트를 친 후 바로 트레일로 이동. 트레일은 힘이 들지 않았고 풍경은 멋졌음
8월 24일(목)	포틀랜드로 4시간 50분 이동	포틀랜드 캠핑장	이동 시간이 길어서 텐트 치고 그냥 쉬. 캠핑장만 살짝 돌아봄
8월 25일(금)	올바니로 2시간 40분 이동	Super8올바니	아침에 멀티노마 폭포구경 후 그냥 내려 오려다 또 준비없이 한참 등산을 하다 내려옴.(만육천 보)
8월 26일(토)	쿠스베이로 3시간 이동	쿠스베이 블라드 비치 스테이트 파크 캠핑장	가는 도중 아름다운 해변을 한참 구경한 후 캠핑장 도착. 지금까지 중 가장 시설 좋은 캠핑장이었음
8월 27일(일)	레드우드로 3시간 이동	레드우드 밀크릭 캠핑장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엄청 큰 나무들이 많은 트레일을 하나 돌고 감 마지막 노숙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냄
8월 28일(월)	산타로자로 5시간30분 이동	BestWestern Plus wine contry Inn & suit)	이동 시간이 길어 호텔에 투숙 후 바로 쉬

8월 29일(화)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 이동, 프레즈노 호텔까지 3시간 이동	데이즈 인 요세미티 에어리어	샌프란시스코 도착 후 언덕에서 금문교 구경, 피셔맨스워프로 이동 후 쪽 산책. 길거리에서 크램차우더 사먹고 호텔로 이동
8월 30일(수)	집으로 7시간 이동		식스플래그입구까지 갔다가 웬디스에서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옴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신 학 휴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sh0536@daum.net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GLI	(국가) 미국
기 간	2017. 1. 5 – 2017. 12. 12	[귀국일: 2017년12월2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 년 1 월 일

신 청 인 : 신 학 휴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San Diego는 LA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30여분 거리에 Mexico와 접경하고 있다. San Diego는 온화한 날씨, 쾌적한 생활여건,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으로 미국인들, 특히 여유가 있는 퇴직자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미국을 여행 하면서 San Diego에 산다고 하면 대부분이 부러워하였다.

San Diego에 가서 처음에는 전기, 인터넷 설치,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 개설, 차량구매를 하였다. 다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여년 동안 운전경력이 있을지라도 2-3번 실기시험을 보아야 합격하였다. 따라서, 실기시험은 우리나라와 합격기준이 다르므로 시험을 보기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실기시험 볼때 주의사항과 요령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실기시험을 보는 코스를 사전에 답사하여 운전해보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처음에 UCSD GLI과정에 미국인 및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winter, spring semester에는 KDI 학생들과 일본인 3명이 같이 수업하였다. 또한, fall semester에는 Kaist에서 6개월 과정으로 온 학생들이 10여명 합류하였고, 일본인 2명, 중국인 1명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 fall semester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GLI학생들을 위하여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였으나, 다른 학기에는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일반 대학원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

ESL 영어수업은 학기별 두 과목이었는데, 내용은 기초 영작문과 문법을 배웠으며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수업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영어선생님은 매 학기마다 동일 선생님이 가르쳤으며, 비슷한 내용의 수업이었다. 한 선생님에게 3학기를 계속해서 수강했는데, 매 학기마다 수업내용이 비슷하여 마지막 학기는 지루하기까지 하였다. 매 학기마다 선생님을 교체하는 것이 UCSD GLI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UCSD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였으면 한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Semester)는 Winter, Spring, Summer, Fall 4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Summer학기는 ESL코스로 주로 영작문, 영어회화 등 일반 영어과목을 수강한다. 매 학기 ESL과정 2과목과 일반과정 2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출석율은 최소한 80%이상 되어야 한다. 수강신청은 KDI에서와 달리 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대부분 수강을 할 수 있다.

Summer학기에 ESL코스는 6주 단위로 I, II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주로 Kaist에서 온 학

생들이 수강하는데, 매주 월요일-목요일 08:30- 12:20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아파트는 테익오버로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생활용품이 거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방 천장에 전등이 없어 별도의 스탠드로 생활하였으며, 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수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층별이나 위치별로 아파트 임대료의 차이가 많으며, 임대료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check로 지불하였다. 임대료는 매달 1-3일까지 지불해야 하며 하루라도 연체되면 50불정도 연체료를 부과하므로 임대료 지불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바닥은 카페트가 깔려있어 보기에 좋고 소음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지만, 먼지가 많고 세균번식 가능성이 높고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San Diego에는 Zion Market이나 H Mart 등 대형 한인마트가 시내에 있는 관계로 한국음식 재료는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음식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다. 또한, 소고기가 무척 싸서 소고기, 우족, 소꼬리 등을 많이 먹었다. 점심은 대부분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햄버거나 토스트 등 간단한 음식을 먹는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Mesa college

1-4월까지 야간에 mesa college에 다녔었는데 영어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mesa college는 주간과 야간으로 운영되는데 학비가 무료이며, 테스트를 거쳐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한다. 야간은 월-목요일(주간은 월-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문법, 리스닝, 작문, 스피킹 등 다양하게 진행한다. 주로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수강한다. 수업시간 중 3-4명 단위로 학생들끼리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지므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 Tutor

학기초에 UCSD에 tutor를 신청하여 2학기(2-6월)동안 참여하였다. 1:1 tutor는 대기자가 많아 어렵고, 한국인 학생 3-4명과 tutor와 만나 1주일에 2시간 같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좋았던 점은 우리나라 대학교나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UCSD에서 교육받는 사람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4월경 tutor가 한국인 수강생들을 본인 집으로 초청하여 처음으로 미국인 가정을 방문하였다.

많은 외국인을 만나고 영어능력 향상을 원하면 교회나 도서관 등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ESL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여할 수 있다.

○ 여행

미국에 1년 생활하면서 많은 여행을 하였다. 여름방학 기간중 뉴욕, 워싱턴, 나이아가라 폭포 등 동부지역 14일 패키지와 자유여행, 엘로스톤, 밴프 국립공원, 벤쿠버,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지역 15일 자동차여행, 알래스카 1주일 여행, 시카고 5일여행, Grand circle 을 통한 canyon여행, 주말을 이용해 요세미티, 팜스프링, 서부 1번도로 여행, las vegas 여행 등 많은 곳을 방문하였다.

특히, 등산용품을 구입해 다양한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텐트를 치고 둘러앉아 불을피워 놓고 고기를 구워먹은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미국에서의 캠핑은 한국과 다른 매력이 있다. 또한, 국립공원 연간 입장권(차량당 \$80)을 구입하면 모든 국립공원(시립, 주립공원 제외) 입장이 가능하다.

○ 골프

미국에서 골프체험은 국내대비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여가생활이다. 골프장비 구입과 골프장, 티타임 선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좋은 조건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잔디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10-20볼로 1게임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레슨비가 한국에서보다 많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에서 최소 6개월이상 레슨과 실전을 경험한 후 미국에서 골프를 즐긴다면 실력이 매우 향상될 것이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 과정은 일생동안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외국생활을 하는 관계로 낯선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 초창기에는 수업 참가나 mesa college, tutor를 통해 영어실력을 높여 보겠다고 생각했지만,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려웠다. 영어의 벽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다.

GMP 2년차 1년 동안에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고방식을 알고, 그들을 좀더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자유시간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폭넓게 교류하면서 그들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 때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요 지역을 여행하면서 보다 미국의 실제적인 상황을 체험하였다.

7.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은 넓은 면적, 다양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복 받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여 어디를 가든 우선적으로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평소 생활할 때는 물론이고 낯선 곳에 여행할 때 안전여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우리 가족이 금년 6월 시카고를 여행하였는데, 시카고는 미국에서 4번째 큰 도시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금년 초에 안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 숙소를 잡은 곳이 시카고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흑인 밀집지역이었다. 첫날 방문했을 때 출입문이나 창문이 모두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2일을 예약했는데 1일만 잠자고 아침 일찍 도망치듯이 나온 경험이 있다.

미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등 다양한 곳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더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비행기를 가급적 빠르게 예약하면 최소 1.5-2배는 값싸게 여행할 수 있다. 쇼핑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다. Thanks giving day 등 대량 할인시즌에 구입하면 상당히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골프,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였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얻은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다. 새로운 경험은 짜릿하지만 때로는 어렵거나 힘들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한 자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정보를 탐색하여 새롭고 낯선 1년간의 생활을 뜻깊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향우	학번	
이메일	lhw1601@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GLI	(국가) 미국
기 간	2017. 1. 5 – 2017. 12. 15	[귀국일: 2017년12월1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2월 20일

신 청 인 : 이 향 우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San Diego는 미국 California State의 남부, 미국의 남서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 위치한 LA로부터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그리고 남쪽으로 Mexico로부터는 30분 거리에 있다.

기후는 여름에는 햇빛은 따가울 정도로 강하지만 그늘에 들어서면 시원하고 저녁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습하지 않아 더운 느낌이 없이 쾌적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겨울의 경우 낮에는 따뜻하거나 때론 덥기도 하지만 밤에는 추워 난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서태평양에 접하고 있어 때론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인디안 썸머) 경우가 있고, 갑자기 서늘해 지는 경우도 있다. 연간 강우량이 많지 않고 연평균 기온은 약 13-20°C 정도 높아 온화하고, 특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캘리포니아의 특성상 깨끗한 공기로 생활하기에 매우 쾌적하다.

San Diego는 연중 온화한 날씨, 쾌적한 생활환경, 낮은 범죄율 등으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월세, 기름 값 등의 물가는 높지만, 농산물 등 식자재 값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GLI(Global Leadership Institute)는 Non-degree 코스로 세계 각국에서 직장인들이 해외연수 Program으로,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GLI의 프로그램은 평이한 수준이며, 매 학기당 3-4과목 (1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과목마다 Report, Presentation과 Mid Term, Final Term Exam 등으로 구성된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Quarter)는 1년 동안에 Winter, Spring, Summer, Fall 4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US government, Global Leadership,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영어, Presentation Skill, Academic Writing 등을 배운다. Summer학기는 ESL 코스로 주로 일반 영어과목을 공부하며 TOEFL (또는 TOEIC) 점수 제출로 제외할 수 있다.

매 학기 3-4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겨울학기는 ESL 2과목, 보통 일반대학원 코스 1과목, GLI코스 1과목을 이수한다. 봄학기의 경우는 GLI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며 일반 대

학원 코스 2과목, ESL 2과목을 이수하며, 가을 학기의 경우는 GLI 2과목, ESL 2과목이 개설된다. ESL 과목은 주로 미국의 문제점 (가난, 인종문제, 총기사고, 환경문제, 비만과 음식문화 등)을 다루며, 이를 이용한 presentation과 writing을 배운다. 그리고 GLI 과목은 주로 외국인들을 위한 과목으로 학습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나 일반 대학원 과목은 현지 미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경우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다. GLI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과 일반 대학원 과목의 수강 신청에는 별 다른 제약이 없지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GLI 과정에는 San Francisco와 Washington DC 세미나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San Diego 내의 야구장, 항구, SDG&E innovation center, County of San Diego 등을 방문함으로써 살고있는 지역의 이해를 돕는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GLI (Non degree) 과정 학생은 기숙사 입실자격이 없어 캠퍼스 밖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San Diego의 아파트 임차료는 타 도시에 비해 비싼 편으로 보통 1 bed, 1 bath가 1,500-2,000불 정도이고, 2 beds, 2 baths는 2,000-2,500불 정도이다. 그러나 KDI 학생들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지고 학교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임대료가 좀 싸지만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다. 대부분의 아파트 바닥은 카펫으로 소음 방지에 좋으나 먼지가 많고 생활 환경에는 쾌적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학교 수업이 길지 않은 관계로 (수강 신청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먹게 된다. 처음에는 양식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양식의 느끼함에 질려 바로 한식 위주의 식사로 돌아오게 된다. San Diego에는 Zion Market이 있어 주말 세일을 이용하면 신선하고 값싼 과일 및 야채를 살 수 있다. 과일 및 야채의 가격은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과일도 한국에서 접하지 못한 이색 야채와 과일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육류 및 식수 등은 코스트코가 저렴하며, 공산품의 경우 미국은 환불 및 교환 제도가 잘 되어있어 편리하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San Diego는 한국과 같이 분리수거가 발달하지 않아 종이와 플라스틱 정도만 분리수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닐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물병 등 플라스틱 병에 재활용 비용이 추가되는데 (구입시에 물건값에 추가됨), 빈 물병이나 캔을 모아 재활용 센터에 갖다 주면 그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

부분 가솔린, 공산품, 식수 등은 코스트코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가져가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마존의 이용은 학생의 경우 6개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료 배송 및 영화 등을 볼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시에 체크를 신청하면 생활하는데 편리하다. 한국인에게서는 익숙하지 않은 체크이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쓰이며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체크나 현금이 아닌 온라인 이체 시에도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공과금, 아파트 월세 등 납부시에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 되므로 납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차 위반, 주차 시간 초과시에는 주차료에 상관없이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운전시에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오면 한쪽으로 비켜서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하며, San Diego의 경우 소방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 다니므로 유의 해야 하며, 스쿨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학생들을 태우고 내릴 때에도 정차하여야 한다.

여행시에는 여행계획은 일찍 세우고 비행기표는 일찍 예매하는 편이 저렴하며, 호텔의 경우에는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그리고 비행기표도 매일 금액이 달라 지므로 구글에 등록해 놓으면 메일로 금액의 변경을 알려주며, 여행전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점검, 로드 서비스, 보험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 많은 곳을 여행하기를 추천한다. 나의 경우, 여름 방학동안 항공편으로 이동하여 렌트카로 여행하는 동안 미국의 또 다른 면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국립 공원들은 정말 부러웠으며, 백인들만 사는 마을, 치안이 불안해 보이는 마을 등 직접 돌아 다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험 이었다. 그리고 고속도로 운행 중 로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타이어 값과 보험료를 받기위해 Agency와 본사와의 의견이 달라 한달 동안 메일과 전화로 이의 제기를 했던 것도 힘들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 과정으로 미국에 직접 살아본 경험은 말이나 책을 통해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San Francisco와 Washington DC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그런 면이 샘이 나기도 했다.

UCSD의 GLI은 과정은 Non Degree Course로 비록 학위는 받지 못하지만 ESL과 GLI 과정을 통한 Presentation Skill과 세계 문화를 배우고, 일반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GLI 과정은 남들보다 미국생활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이다. Degree과정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시간을 활용한 폭넓게 교류, 방학 때 미국 각

지의 주요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낀 경험 등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J 비자의 경우 학기를 마치고 한달간, F 비자의 경우 2달간의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다. 아이가 미국에서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J2 비자가 아닌 F1 비자로 가는 것이 편리하며 UCSD 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출·입국의 경우, 별다른 불편 사항은 없었으며 질문은 기본사항 정도이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경우 학원에 따라 여름방학과 해외방문에 따른 방학, 몇 개월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할인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나 재정에 도움이 된다. 만일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을 할 경우 F1 비자는 학원의 확인 사항이 필요하니 학원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에 있는 동안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어의 능력에 얽매이지 말고,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가급적 많은 외국인과 교류하고 미국의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 문화, 생활 등 폭넓은 지식을 통해 그들의 글로벌 기업의 저력, 다른 나라를 연구하는 연구시스템, 자본주의 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미국의 장점과 단점을 한국의 발전에 적용,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일년간 미국 생활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소중한 자기만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